

호남반도체 기업총수 증인 요구...“정쟁 도구 삼겠다는 것”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사진)은 13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기업 팔 비틀기’ 주장에 ‘호남 비틀기’라고 맞받으며 “호남도 좀 먹고살게 되라.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반박했다.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 의혹을 규명하겠다고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시작돼

신정훈, 나경원·김위상 “팔 비틀었다” 주장 정면 반박
“호남도 좀 먹고살게...오랜 산업화 소외부터 돌아봐야”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을 비틀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최태원(SK그룹) 회장과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에는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불러 세우려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부르면 발목 잡기인가. 이런 이중 잣대야말로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기업 팔 비틀기는 전두환 정권이 했고, 박정희 정권이 했고, 소위 말해서 노태우 정권이 했지, 민주당 정권이 언제 기업 팔 비틀기를 했느냐”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대규모 국가적 투자가 마쳐 민주당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이뤄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해외 투자 압박으로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때야말로 기업의 투자 방향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오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호남에 대한 투자마저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임지 당위성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호남이 오랫동안 산

이여 “최태원·이재용 회장 증인 채택은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업기반 부족으로 산업용수와 산업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현실을 지적하며, 풍부한 수자원과 에너지를 첨단산업 육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집의에서도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력·용수 공급이 늦어지더라도 공사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대비하며 기업의 투자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고용 대응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 ‘서남권 최소 4000 명 인력 양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가전략산업의 일자리 대책이 인력 4000 명 양성 수

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인재 양성이 실제 기업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전담 TF 구성 △임자리 창출 관련 용역 시행 △직·간접고용 분야별 일자리 종류·규모 및 연도별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고용지원사업과 지역 대학·교육기관을 연계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실제 기업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신규채용 목표와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병내 시군구협 대표회장 “정부와 소통...지방 현안해결 앞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병내 대표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4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신뢰와 존중의 바탕 위에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지난 6일 제43회 국무회의 참석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정은 국민의 삶에서 시작되고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군·구이며, 그 성과 또한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며 “지역 현장에는 민생경제와 일자리 복지와 돌봄, 재난과 안전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이런 과제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노력에 지방정부에서 곧게 실행될 때 비로서 정책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기초지방정부 대표가 국무회의에 참여해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가 국정에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며 지방정부들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227개 시군구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 책임자들이(국무회의에서) 미리 준비 없이 얘기를 시작하면 자칫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지방행정은 국정의 논의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지방정부 책임자분들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전남광주 남구청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사진제공=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무회의에 두번째 참석...“중앙-지방 상호 신뢰·존중을”

“청소년 자살예방 우수사례 공유... 정부에 개선사항 건의”

은 제기하고 싶은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주면 함께 논의할지 공개적으로 취급할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병내 대표회장은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과 예

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회장은 “전국 시군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남구의 경우 정신건강 지원

기관의 명칭을 ‘마음지기센터’로 변경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227개 시군구의 우수한 시민 사례를 공유하는 정책대회를 자리매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섬 의사 환자 이송 나서면 진료공백 생겨”

이현명 시의원, 조도보건지소 공보의 1명 배치 지적

섬 지역의 부족한 의료인력이 응급환자 이송까지 맡으면서 남아 있는 주민들의 진료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 응급진료 수요에 맞는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약국이 없는 섬에는 정기 여객선을 활용한 ‘해상약국’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사진)은 최근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진도지역 공중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들어 섬 의료체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취약지 기반별 공중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역 취약지 기관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지소는 97명이다. 이 가운데 진도군 배치 인원은 2명이며, 조도보건지소에는 1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군에는 전체 247개 섬 가운데 주민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43개에 달한다. 이 의원은 섬마다 이동 여건과 의료 수요가



다른 만큼 단순한 인원 배치를 넘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환자를 선박으로 이송할 때 의료진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 진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송 업무로 자리를 비우면 해당 시간에 다른 주민이 진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가득이나 부족한 의료인력이 이송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 남아 있는 주민들까지 진료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치 인력의 전문분야와 현장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도 거론했다. 응급진료가 필요한 기관에 공중보건지소를 배치하더라도 해당 인력의 전문분야가 기관의 기능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응급의료 수요에 적합한 의과 인력 확보를 요구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문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확인 법안 발의

사회보장·제적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심사 효율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정보시스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제적 관련 전산정보를 체계적으로 대조·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련 업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



도록 했다.

다만 정보시스템 이용 시 자료의 범위와 처리 목적·방식 등을 특정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처리된 정보는 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во 통과하면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희생자와 유족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행정자료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파세노 니카 데시스씨



도슨트 김숙연씨



자원봉사자 김희순씨

섬 관광부터 생태 보전까지...

여수섬박람회 가치 전하는 사람들

해외참가자·해설사·봉사자

전시 안내·체험 등 지원

정보 공유·해양환경 교육

반환점을 지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국내외 참가자와 시민봉사자들이 섬의 관광·생태·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해외 참가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의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해설사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지역 행사에서 경험을 쌓은 시민들은 체험 현장을 지원하며 관람객을 맞고 있다.

지난 9월 5일 개막한 박람회는 13일 현재 누적 관람객 117만명을 넘어섰다. 후반기 전시 개편과 체험 프로그램 보강에 맞춰 현장 참가자들도 안내와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박람회장에서 얻은 관심이 실제 섬 방문과 생태 보전, 지역 간 교류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국제교류섬 필리핀관의 파세노 니카 데시스씨는 관람객이 일부 유명 섬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여행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공과 상하이 등 국제행사에 참여한 경험에 있는 그는 여수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필리핀의 섬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니카씨는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숙박과 음식점뿐 아니라 교통, 해양레저,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섬들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역시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여수에 365개의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장도를 방문했다. 그는 “섬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리핀과 여수간 서로의 섬을 여행하고 경험하는 관광 교류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내 지역 간 관광정보 공유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국제교류섬에 문을 연 부산광역시 흥보관은 부산을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1박2일 코스와 향토음식, 축제 등을 소개한다. 부산광역시관광협회 관계자 차인건씨는 여수 방문객에게 부산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할 기회를

로 이번 참가를 보고 있다.

관광 안내와 함께 해양환경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여수 문화관광해설사 김숙연씨(68)는 지난달 19일부터 해양생태섬 도슨트로 활동하며 해조류의 생태와 해마의 번식 방식, 해양생물의 특징을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미술과 전시에 관심이 많았던 김씨는 시민이자 해설사로서 박람회 운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원했다. 관람객이 평소 몰랐던 해양생물의 특성에 관심을 보일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생물에 대한 설명을 넘어 해양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전한다. 섬을 육지의 경관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변 바다와 생태계, 사람의 생활이 연결된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씨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섬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어떻게 해야 자연과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봉사자들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돕고 있다. 이순신 장군 체험 공간에서 활동하는 김희순씨(72)는 여수거북선축제 등 지역 행사에서 40년 가까이 봉사를 이어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여했던 동료들과 이번 박람회에도 함께하고 있다.

곳에서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관람객들이 장군 의상을 입고 거북선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긴다. 김씨는 관람객들이 의상을 입고 즐거워하거나 어르신들이 전통 의상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회원들이 나이가 많아 들었지만 우리 여수에서 하는 일이니깐 이번에도 해보자고 했다”며 “연휴에는 서서 설 시간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됐다”고 말했다.

개막 이후 한 달 넘게 현장을 지킨 김씨는 추석 연휴를 거치며 관람객이 늘어나는 변화도 체감했다고 했다. 박람회에는 시민봉사자 외에도 지역 기업과 예술인, 시민단체가 공연 능력을 부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